

# 디자이너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인터뷰와 아카이브: 『펼친 면의 대화』와 『우리는 책을 디자인합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 Interviews and Archives as Methodologies for Design History Research: Case Studies of *Dialogues on the Double-page Spread and We Design Books, We Design Life*

저자 Author: 박세희 Park Sehee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과정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Arts, Yonsei University

- 서론
- 이론적 배경: 디자인의 작은 역사를 발굴하는 방법론
  - 인터뷰
  - 아카이브
- 사례 분석: 『펼친 면의 대화』와 『우리는 책을 디자인합니다』
  - 무엇을 말하고 듣는가
  - 어떻게 쓰는가
- 논의: 인터뷰와 아카이브의 방법론적 쟁점과 가능성
- 결론

이 글은 한국디자인사학회 열 번째 학술대회  
“아카이브 장소로서의 책, 아카이빙 행위로서의 복디자인”에서 발표한  
“작은 역사를 말하고 쓰기”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27일  
게재일: 2025년 2월 28일  
Received Date: December 30, 2024  
Accepted Date: January 27, 2025  
Published Date: February 28, 2025

pp.012–029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012013

### 요약

이 글은 디자이너 인터뷰집에서 드러나는 디자이너 연구 방법론의 의미와 제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펼친 면의 대화』와 『우리는 책을 디자인합니다』를 사례로, 두 책이 기존 디자인사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서사를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인터뷰와 아카이브가 창작물 이면에 자리한 개인의 일상과 사회적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명하며, 작은 역사를 발굴하는 데 유효한 방법론이라는 주장을 개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기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작업물이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불균형적 서사가 형성될 가능성은 없는지, 아카이브가 특정 권력 구조를 재생산할 위험을 내포하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질문을 수반한다. 이에 비판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한국디자인사가 다양한 목소리와 맥락을 아우르는, 보다 성찰적이고 다층적인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핵심어

『펼친 면의 대화』, 『우리는 책을 디자인합니다』, 인터뷰, 아카이브, 작은 역사, 디자인사 연구방법론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trengths and challenges of using designer interview collections as a methodology in design history research. By analyzing *Dialogues on the Double-page Spread and We Design Books, We Design Life*, it also examines how conventional design history often overlooks narratives. Interviews and archives serve as valuable tools for uncovering microhistories that reveal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experiences and the broader socio-cultural contexts that shape creative practices. However, this approach also raises important questions: How reliable are sources based on personal memory? Does prioritizing people over artifacts potentially distort the overall picture? And can archives inadvertently perpetuate specific power structures? To address these concerns, this paper proposes strategies for navigating such challenges. Ultimately, it underscores the potential for Korean design history to evolve into a more reflective and layered discipline—one that embraces diverse voices and contexts to bridge the gaps left by traditional scholarship.

### Keywords

*Dialogues on the double-page spread, We Design books, We Design Life, interviews, archives, microhistory, design history research methodology*

## 1. 서론

근대 역사학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그것의 기록으로서 사료에 집중한 일군의 역사학자에 의해 과학성을 획득했다. 그들에게 사료란 과거의 사건과 행위가 남긴 객관적이고 불변적인 증거이며, 역사적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일군의 학자는 사료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때가 있다며, 사료의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기록을 남길 수 있거나 남길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일부에 의해 생산된 사료는 여성, 소수자, 그 외 비주류 집단의 경험을 역사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사료가 편향적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 미처 기록되지 못한 목소리를 어떻게 역사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시공을 초월한 역사학(자)의 과제다.

디자인사 연구(자)도 이러한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범은 역사의 기능을 '정당화(justification)'와 '성찰(reflection)'로 구분하면서, 한국디자인사가 정당화의 편향 속에서 발전한 학문이었다고 말했다.<sup>1</sup> 디자인의 정치적·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한국 사회의 발전 서사와 디자인의 역할을 동일시하는 서술이 주를 이룬 반면,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최범의 지적은 그간 디자인사 연구(자)가 디자인의 보편적 정전(canon)을 만들기 위해 상징자본(symbolic capital)<sup>2</sup>을 가진 주류의 서사에 천착했음을 반성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한국디자인사를 서술하는 대안적 접근법인 미시사(microhistory), 즉 '작은 역사'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작은 역사는 공식 역사(official history)에 포함되지 못한 이야기를 길어 올리려는 역사관이다. 그것은 '역사학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던 역사를 보는 관점과는 다른 맥락에서 역사를 파악하려는', 역사를 다르게 읽고 쓰려는 시도이다.<sup>3</sup> 그렇다면 작은 역사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가? 이 글은 그 실마리를 디자이너 인터뷰집에서 찾는다. 특히 이 글이 다루는 『펼친 면의 대화』(아트북스, 2024, 이하 『펼친면』)와 『우리는 책을 디자인합니다』(알음알음, 2024, 이하 『우책디』)는 복디자이너의 일과 삶을 전면에 내세워 작업 이면의 과정을 발화하고, 일상적 경험과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디자인의 작은 역사를 조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펼친면』과 『우책디』의 사례를 통해 디자인사를 연구하는 또 다른 경로를 가능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장에서는 디자인의 작은 역사를 발굴하는 방법론으로 인터뷰와 아카이브를 호명하고 그 이론적 의미를 확인한다. 3장은 사례분석으로, 두 책이 작은 역사를 청취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는다. 4장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에 제기되는 의문과 비판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한다. 이를 통해 한국디자인사가

- 1 정당화가 역사의 필연성을 강조하며 특정 서사를 구축한다면, 성찰은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선택된 현재를 인식하도록 한다. 최범, 「디자인사 연구의 과제와 방법: 왜, 무엇을, 어떻게?」, 『Extra Archive: 디자인사 연구』, 1호, 한국디자인사학회, 2020, pp.12-25, p.16
- 2 상징자본은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고안한 용어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계급은 물질적 측면의 자본(경제자본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 등 비물질적이면서도 상대와 자신의 위치를 구분지을 수 있는 근거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상징 자본은 '능력에 대한 명성과 존경과 이미지'를 '획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당하게 발휘되는 힘(이라고 인식/오인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디자인 '장(field)'의 상징자본은 특정 디자이너의 작업물과 일련의 스타일에 대한 헌사,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클라이언트와의 지속적인 협업, 그로 인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을 골고루 갖춘 상태를 뜻한다. 인용구는 다음의 것. Pierre Bourdieu, *La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1984, p.291
- 3 조한욱, 「미시사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론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국사편찬위원회, 2001, pp.143-166, p.146

# 014015

기념비적 작업과 소수의 디자이너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넘어, 보다 다양한 목소리와 맥락을 수용하는 성찰적이고 다층적인 학문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그 가능성을 모색한다.

## 2. 이론적 배경: 디자인의 작은 역사를 발굴하는 방법론

김경주는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명사(design) 뿐만 아니라 동사(to design)로도 인식해야 한다고, 디자인을 '프로세스의 영역'이라 설명했다.<sup>4</sup> 그가 말한 프로세스란 이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이란 디자이너의 직관적인 판단과 감성에만 의존한 창조물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현실적인 디자인 프로젝트는 협상과 결정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회의, 견적서와 계약서 등을 포함한 문서, 디자인 시안과 수많은 관계자들을 거쳐 완성된다. 여기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은 덤으로 주어진다.<sup>5</sup>

프로세스로서의 디자인에 접근하기 위해 디자인사 연구(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이 글은 인터뷰와 아카이브에서 실마리를 찾는다. 거시 담론과 계보가 파악하지 못했던 디자인의 수많은 주체와 서로 다른 갈래로 뻗어나가는 작은 역사를 발굴하는 일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인터뷰와 아카이브의 이론적 의미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 방법론이 한국디자인사의 또 다른 서사적 층위를 형성하는 이유를 확인한다.

### 2.1. 인터뷰

주지하다시피 인터뷰란 '상호 관점(inter-view), 즉 공통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점 교환' 과정이다.<sup>6</sup> 인터뷰는 정량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인간 삶의 다양한 장면을 포착하는 데 용이하다. 그런데 한국디자인사 연구, 특히 학술논문 출판 단계에서 인터뷰를 활용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디자인은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만들어지는 '물질적 결과물'이라 문헌으로 기록되지 않은 특정 주체를 지목하여 그 인간적 면모를 분석하기 어려워, '인간이나 인간 집단'을 '서술의 주체'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sup>7</sup>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 이론은 대개 '미술사에 의존한 양식사 위주의 연구와 교육'을 촉진했고, 그것은 20세기 후반 페니 스파크(Penny Sparke)가 "미술사에 국한된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디자인의 사회, 문화적 관점을 제시할 때까지 지속되었다."<sup>8</sup> 그리고 이 같은 인식과 경향은 연구자의 관심을 도상 분석이나 연대기 서술로 유도했다.

디자인을 결과물이 아닌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그 과정을 만드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 4 김경주,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용한 시각표현 연구: 아카이브 방식을 활용한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1
- 5 김경주,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용한 시각표현 연구: 아카이브 방식을 활용한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p.xi
- 6 Steinar Kvale,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6; 천혜정, 「연구 방법으로써의 질적 인터뷰: 철학적 의미와 방법적 측면」,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권 3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4, pp.113-125, p.114에서 재인용
- 7 채승진, 「역사 연구방법에서 디자인사의 위치와 방향」, 『디자인학연구』, 35호, 한국디자인학회, 2000, pp.76-77, p.77
- 8 김여용·박영목, 「다학제적 관점의 디자인사 조망 필요성」,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디자인학회, 2015, pp.264-265, p.264

# 016017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터뷰는 문헌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혹은 문헌으로 만들기 어려웠던 인터뷰이 고유의 경험을 말하고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말하기’의 측면에서 인터뷰는 발화자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자료를 만든다. 말은 순간의 감정과 즉흥적 반응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때로 더 격정적일 수도 있고 혹은 거꾸로, 보다 여유 있는 기본일 수도 있고, 말하기의 성격 탓에 더러는 엇나가기도 하고 문맥이 달라지며 주제에 대한 회고마저 흔들릴 수도” 있으나, “사실의 맨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으로써 ‘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에 부응한다.<sup>9</sup> 전통적인 연구는 스스로를 가시화할 수 있는 극소수에 용이하기 마련이다.<sup>10</sup> 물론 “당시의 디자인계와 그와 관련된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디자이너들의 개인 생애사나 일부 디자인 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sup>11</sup> 그러나 시대의 아이콘을 상징하고 그의 말을 시대와 동일시하는 태도는 모든 서사를 집합적인 하나의 과거로 통일하기 마련이다. ‘듣기’의 측면에서 인터뷰는 이 통일의 폭력을 고발한다. 그리하여 담론장이 승인한 기존의 논리에 대항하는 서사를 구축한다.<sup>12</sup>

디자이너 인터뷰집은 그간의 디자인사 서술이 놓친 수많은 목소리를 청취하는 작은 역사적 접근이다. 예를 들어, 『이영희는 말할 수 있는가?』(2023, 이하 『이영희』)는 구술사(oral history)를 방법론으로 활용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구술사는 입(口)을 통해 전해진 말(述)로써 쓴 역사(史)로, 문헌 기반 연구가 지배 담론의 재생산에 이용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창안된 역사 쓰기와 연구의 방법론이다.<sup>13</sup> 『이영희』에는 이종백, 이찬수, 그리고 이영희가 구술자로 참여했다. 1960년대 대구-경북 지역에서 태어나 대구의 학교를 다녔고, 대구에서 출판물을 만들어 온 인물들이다. 『이영희』는 이들의 구술을 통해 “소수의 영웅적인 개인과 몇 개의 기념비적인 작업”이 아닌 “가시화되지 못한 디자인사(들)”를 “발견하고 기록”할 것을 제안한다.<sup>14</sup> 또 다른 사례로 『한국,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 11』(6699press, 2016, 이하 『11』)을 들 수 있다. 활동 영역, 근로 환경, 연령, 결혼과 육아 경험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11명의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가 “대화하고 싶은 상대를 초대하는 방식을 통해 ( … ) 오늘날 한국에서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기록이다.<sup>15</sup> 『이영희』가 시대를 인식하는 다른 입장을 증언한다면, 『11』은 수다에 가깝다. 그 수다는 “비범한 여성의 자전적 삶을 인터뷰하고 그것을 롤모델로 따라가게 만드는, 몰아가기식 인터뷰”를 지양한다.<sup>16</sup>

인터뷰는 대화를 통해 기억과 경험을 생동감 있게 재구성한다. 그래서 문헌이나 물질적 결과물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인간적 면모와 맥락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특히 디자인사 연구에서 인터뷰는 ‘디자인된 결과물’이 아닌 ‘디자인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존의 연구와 담론에서 배제되거나 주변부에 머물렀던 이들의 서사를 가시화한다. 이는 대안적 역사 쓰기의 가능성을 열고, 역사를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2.2. 아카이브

디자인을 포함한 동시대 예술 현장과 담론에서 아카이브의 무게는 상당하다. 그것은 ‘아카이브 열병(archive fever)’ 혹은 ‘아카이브 열풍(archive impulse)’과 같은 의제를 통해 예술가, 이론가, 비평가에게 영감을 제공했으며, 동시에 실천적 방법론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sup>17</sup>

아카이브의 사전적 의미는 역사적 기록이나 자료의 축적물, 또는 그것이 보관된 물리적 장소다.<sup>18</sup> 과거 아카이브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수집 또는 보존” 행위로 이해되었다.<sup>19</sup> 영국의 기록관리학자 힐러리 젠킨슨(Hilary Jenkinson)에 따르면, 기록은 행위를 입증하는 부산물이다. 그리고 기록에 대한 해석이나 별도의 가치 판단은 기록의 진본성을 왜곡하고 그에 따라 행위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젠킨슨은 아카이비스트에게 최대한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문서를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sup>20</sup> 이는 과거의 사건에 자의적인 해석과 의견을 덧대어서는 안 된다는 실증주의(positivism) 역사관에서 비롯된 전통이다.

이에 비해 현대의 아카이브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유기체로 인식된다. 아카이브는 자료의 축적뿐만 아니라 기록과 보존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과 해석을 바탕으로 두기 때문이다. 기록은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며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창발한다. 이 과정은 아카이브가 보존의 역할을 넘어 포함과 배제의 논리를 동원하는, 그리하여 특정 담론의 형성과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임을 드러낸다.

책은 기록과 공유를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하는 아카이브 매체다. 현대의 책은 문자뿐만 아니라 시각 이미지의 활용, 편집과 디자인의 전술을 활용하여 특정 시대와 공동체에 영감을 주는 담론을 형성한다. 또한, 책은 물리적 차원에서의 보존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월드 와이드 웹(WWW)의 등장은 세계를 거미줄(web)처럼 연결한다는 야심 찬 포부의 발현이었다. 많은

9 김병익, 『못 가 본, 새로운 길의 더 아름다움』, 『예술사 구술 총서 005. 박완사: 못 가 본 길이 더 아름답다』, 국립예술자료원·수류산방, 2014, pp.21-31, p.25

10 그나마도 특정 인물을 다루는 경우 이미 작고하거나 연배가 높은 ‘원로’ ‘선배’ 디자이너의 생애와 업적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한국디자인사학회의 학술지 『Extra Archive: 디자인사 연구』를 보면, 학술논문(기고) 35편 중 인물 연구는 1편(강승연, 「디자이너 이상철을 통해 본 1960-1970년대 초반 한국 디자인」, 『Extra Archive: 디자인사 연구』, 3호, 한국디자인사학회, 2021, pp.10-33)에 불과하다. 학술논문이 아닌 글까지 확장하면 3편(전가경-정재완, 「북 디자인 연구 모임, 1980년대 한국 출판 디자인 현장 기록과 증언」, 『Extra Archive: 디자인사연구』, 2호, 한국디자인사학회, 2021, pp.282-287; 조혜영, 「박휘락 교수에게 듣는 한국 근대 디자인교육」, 『Extra Archive: 디자인사연구』, 3호, 한국디자인사학회, 2021, pp.122-147; 박지나, 「박휘락의 『한국 미술교육사: 미술교육 100년의 흐름(1895-1995)』를 읽고」, 『Extra Archive: 디자인사연구』, 3호, 한국디자인사학회, 2021, pp.148-155) 남짓이다.

11 이지원·김상규, 「디자인 연구를 위한 구술 연구 방향 제안」, 『한국과학예술포럼』, 25호,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16, pp.321-332, p.329

12 ‘듣기’의 측면에서 인터뷰의 의미는 김영희 연세대학교 교수의 강연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13 인터뷰 또한 말과 기억을 다룬다는 점에서 광의의 ‘구술’ 연구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논하는 ‘구술사’에 대한 설명은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통용되는 내용에 기반한 것임을 밝힌다. 다음을 참고하라.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pp.273-294; 김귀옥, 「한국 구술사 연구현황, 쟁점과 과제」, 『사회와역사』, 71집, 한국사회사학회, 2006, pp. 313-348; 이용기, 「역사학, 구술사를 만나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본 구술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 7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9, pp.291-319

14 이민규, 『이영희는 말할 수 있는가?』, 2023, p.7

15 김란·이재영, 『한국,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 11』, 6699press, 2016, p.364

16 김란·이재영, (2016), p.360

17 각각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와 할 포스터(Hal Foster)에 의해 창안된 용어다. Jacques Derrida and Eric Prenowitz,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Diacritics*, Vol. 25, No. 2, (1995), pp.9-63; Hal Foster, “An Archival Impulse”, *October*, Vol. 110, 2004, pp.3-22

18 s. v. “Archive”,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Archive>, (2024.12.17.)

19 김종균, 「초국가적 디자인사 연구와 아카이브: 국립디자인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40호, 한국예술연구소, 2023, pp.299-321, p.304

20 Hilary Jenkinson,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Clarendon Press, 1922): 원종관,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에서 재인용

# 018019

이들은 인터넷의 무한함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인터넷은 유한하다. 서버가 공격을 받거나 운영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곳에 기록된 자료를 확인할 방법은 없거나 매우 어려워 지난한 소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많은 사례를 통해 목격하지 않았는가? 물성을 가진 기록 매체로서 책은 디지털 환경의 역설적 유한성을 보완하며, 시대와 공동체의 기억을 전승하는 아카이브로 기능한다.

한국디자인사의 아카이브로서 디자이너 인터뷰집은 무엇을 기록하는가? 다시 『이영희』를 호출하면, 이 책은 서울이 아닌 대구·경북에서 활동한 디자이너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씬으로써 한국디자인사의 편향성을 비판한다. 대신 지역과 개인의 경험에 축적된 주변부 역사를 해석하고 재구성한다. 그 의도는 책의 디자인에 여실히 드러난다. 책의 오른쪽 면은 세 인터뷰이의 증언을 기록한다. 증언은 그간 기록되지 못했던 지역 디자인의 맥락과 작업 환경을 채집한다. 책의 왼쪽 면에는 문헌과 시각 자료를 수록하여 증언을 뒷받침한다. 신문 기사, 광고, 논문, 각종 이미지는 기억의 주관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류를 보완한다. 『이영희』는 보편적 디자인사의 무대가 아닌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실천을 걸어 올림과 동시에 기억의 왜곡과 오류, 서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증언과 자료를 긴밀하게 연결한다.

(...) 책, 『디자이너의 비밀』의 참여자 총 9명 중 여성 디자이너는 1명이다.

(...) 잡지, 《GRAPHIC》 34호 엑스 스톤 스튜디오 이슈의 참여자 총 71명 중 여성 디자이너는 21명이다.

(...) 학회,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의 임원 총 26명 중 여성 임원은 7명이다.

(...) 전시, 《그래픽 디자인, 2005-2015, 서울》 중 '101개의 지표'에 포함된 45명 중 여성은 9명이다.<sup>21</sup>

위 인용문은 『11』의 서두에 등장하는 각종 통계다. 그것은 디자인 책, 잡지, 학회, 행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설명한다. 『11』이 발행된 2016년 이전의 현실을 요약하는 이 수치들은 한국에서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로 산다는 것의 어려움과 성별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차별 양상을 간명하게 제시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사의 아카이브는 독자가 과거와 현재를 상호 참조하여 역사를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아카이브는 사람, 사건, 사물과 같은 자국(marks)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흔적(traces)의 의미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sup>22</sup> 『이영희』가 서울 중심의 역사에, 『11』이 남성 중심의 제도에 균열을 가하고자 했던 점을 고려하면, 디자인사 연구에서 아카이브는 디자인의 역사를 나열하는 수단이 아닌 해석과 재구성을 통한 다층적, 입체적 역사 서술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3. 사례 분석: 『펼친 면의 대화』와 『우리는 책을 디자인합니다』

작은 역사는 공식 역사와 담론이 배제한 경험과 맥락을 조명한다. 디자인사에서 작은 역사란 주류 이론과 계보가 파악하지 못했던 디자이너의 삶, 작업 과정,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정서적

맥락과 같은 것이다. 이때 인터뷰와 아카이브는 역사와 역사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론으로 기능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펼친면』과 『우책디』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펼친면』은 2024년 4월, 출판사 아트북스가 발간한 책이다. 디자인 저술가이자 출판사 사월의눈을 운영하는 전가경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글을 썼다. 『우책디』는 2024년 5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알음알음을 운영하는 나영선이 기획하고 펴낸 독립출판물이다. 두 책은 북디자이너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의 작업과 그것을 만들어 낸 시간을 다룬다. 그러나 각론 차원에서 두 책의 실천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지금부터는 『펼친면』과 『우책디』의 서사와 형식을 분석하면서 이들 책이 시사하는 바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 3.1. 무엇을 말하고 듣는가

『펼친면』과 『우책디』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디자이너를 만났다. 『펼친면』에는 10명(팀), 『우책디』에는 8명의 디자이너, 총 18명(팀)이 등장한다.<sup>23</sup> 남성이 5명, 여성이 13명(팀)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 여성 인터뷰이의 수적 우세는 『펼친면』과 『우책디』 모두의 특징으로, 『펼친면』에는 3명의 남성 디자이너, 7명(팀)의 여성 디자이너가 등장하고 『우책디』에는 2명의 남성 디자이너, 6명의 여성 디자이너가 등장한다. 노동의 형태를 인하우스와 프리랜서로 나눠보면 7명의 인하우스 디자이너와 11명(팀)의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다만 『펼친면』이 3명의 인하우스 디자이너, 7명(팀)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대화한 것과 달리 『우책디』는 인하우스 디자이너와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 인터뷰를 진행했다.<sup>24</sup>

북디자이너는 책이라는 시각적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결과물은 작업 과정에서 생긴 경험과 고민을 온전히 전달하지 않는다. 물론 결과물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하고 성공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업실 임대료, 육아, 건강 상태와 같은, 이른바 '사적 이슈'는 발화되지 못한 채 디자이너의 생각 한편에만 있을 뿐이다.<sup>25</sup> 인터뷰는 삶의 장면마다 존재하는 기쁨, 슬픔, 설렘,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 그리고 창작 과정의 세세한 부분을 표출함으로써 디자인의 맥락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고향인 부산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학창 시절은 어땠는가?

(...) 중학교 2학년 때 양복용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나에게 미화부장 자리를 권했는데, 학급 부장도 성적순이던 서열 중심 문화를 생각하면 파격 인사였던 셈이다. 나로서는 누군가에게

23 『펼친면』에는 김다희(민음사), 조슬기(문학과지성사), 박연미(프리랜서), 신덕호(프리랜서, The Floorplan 운영), 전용완(프리랜서, 외밀 운영), 이재영(프리랜서, 6699press 운영), 김동신(프리랜서, 동신사 운영), 박소영(열화당), 오혜진(프리랜서, OYE 운영), 굿뉴스(프리랜서)이 참여했다. 『우책디』에는 이차희(프리랜서), 김민해(돌베개), 유진아(민음사), 진다솜(프리랜서, 나침반 운영), 손상범(홍성사), 조슬기(문학과지성사), 최우영(프리랜서, 스튜디오 포비 운영), 김마리(프리랜서, 퍼머넌트 링크 운영)가 참여했다. 조슬기 디자이너는 『펼친면』과 『우책디』에 모두 참여했다. 본문에서 밝힌 총 인원은 이 중복을 포함한 수치이다. 또한, '팀' 표기는 『펼친면』에 등장한 굿뉴스가 개인이 아닌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 것이다. 이 글에서 굿뉴스를 포함한 수치를 이야기할 때는 '명(팀)' 형태로 표기한다.

24 나영선, 『우리는 책을 디자인합니다』, 알음알음, 2024, pp.236-237; 나영선은 "분량이 한쪽에 치우치면 어느 쪽이 정답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수의 인하우스와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섭외했다고 회고했다.

25 전가경, 『펼친 면의 대화』, 아트북스, 2024, pp.7-8; "성별, 지역, 학력 등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는 직업전선에도 반영되기 마련이지만, 이에 탐구하는 것이 디자인계의 암묵적 태도기도 했다."

21 김린·이재영, (2016), pp.10-13

22 안병학, 「디자이너를 위한 태도와 전술로서 아카이브」, 『Extra Archive: 디자인사연구』, 7호, 한국디자인사학회, 2023, pp.134-137, p.135



# 020021

처음 재능을 인정받은 사건이었다. 첫 임무로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데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구경하러 올 정도로 우리 반 게시판이 화제가 됐고, 꽤 성취감을 느꼈다. 이후로도 선생님은 나를 불러 “네가 대학을 가고 직업을 가질 시대에는 예술가에게 섬세한 감성과 다양성이 요구될 테고, 그때 너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격려해 주셨다. 당시에는 이 말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비인격적인 언어로 단점을 지적하고 간섭하면서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던 어른들과는 확실히 다른 언어였다.

놀라운 말씀이다.

처음으로 “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만난 거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다. 누군가의 순수함이나 어려움을 보듬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것이 지금 내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회에서는 ‘착함’이 어리석음이나 약함으로 여겨지지만 나는 착함의 역할을 믿고 싶다. 6699프레스가 책을 내는 이유도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말하며, 삭제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sup>26</sup>

위의 내용은 『펼친면』에 수록된 인터뷰의 한 대목이다. 인터뷰이로 참여한 이재영 디자이너는 “‘긴 호흡의 좋은 글들’을 모토로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를 출판”하는 출판사,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6699프레스를 운영한다.<sup>27</sup> 6699프레스는 여성, 퀴어, 질병, 장애 등 주류 사회가 배제하는 소수자,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 위 인용문에서 소개한 일화는 이재영이 참여했던 어떤 인터뷰에서도 등장하지 않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다. 그러나 다른 어떤 문장보다 6699프레스의 탄생과 지향점을 설명한다. 근대의 지식이 메타 담론(meta discourses)에 의지하여 인간 사유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지식은 개별 담론으로서의 작은 이야기들로부터 새롭게 창출된다.<sup>28</sup> 말로 쓰는 역사는 보편적이고 큰 역사의 관찰 대상이 아니라 자신만의 작은 역사를 서술하는 이를 만들어 낸다.

한편, 『펼친면』과 『우책디』가 인터뷰이에 다가가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인터뷰가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양상은 두 책 모두에 참여한 조슬기 디자이너의 사례에서 극명히 드러난다.<sup>29</sup> 『펼친면』의 질문은 조슬기의 작업물과 그의 디자인 철학에 주목한다. 그의 미적 선택, 디자인 실험, 책의 물성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며, 조슬기의 작업이 동시대 한국 북디자인계에서 점유하고 있는 위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것이다. 반면, 『우책디』는 직업인으로서 디자이너의 삶을 소환한다. 『우책디』의 질문에서는 조슬기의 작업보다 그가 겪는 일상적 고민, 회사 내 업무 분장의 변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경험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디자인이 단독자의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협력과 관계 기반의 과정임을 암시한다.

인터뷰는 거대한 서사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맥락에서 출발한 작은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펼친면』과 『우책디』 속 디자이너는 역사 서술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되며, 책을 읽은 독자는 한국디자인사를 다른 방식으로 독해할 수 있다. 이때 인터뷰는 발화 내용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 인터뷰어의 질문과 서술이라는 매개 행위가 발화의 방향과 내용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펼친면』과 『우책디』가 동일한 인물과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질문의 초점과 논조가 상이한 것을 보라. 이는 인터뷰어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서사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말하는’ 디자이너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표출하면, ‘듣는’ 인터뷰어는 매개 행위를 통해 그것을 재구성한다. 이 과정은 디자인사의 서사적 다양성을 증대하고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 3.2. 어떻게 쓰는가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축적하는 저장 공간이면서 동시에 포함과 배제의 논리를 바탕으로 특정한 기준에 맞춰 기록을 선별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위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는 디자인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디자이너의 작업물을 아카이브로 만드는 행위는 작업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의 개인적 서사, 협업 과정, 문화적 배경 등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것은 디자인사에 기록될 특정 장면을 구성하면서 디자인 장 내부의 권력관계를 드러낸다.

『펼친면』과 『우책디』는 한국 북디자인의 멀지 않은 과거와 현재를 모은 아카이브다. 두 책은 각각 상업출판과 독립출판이라는 상이한 출판 환경에서 발간된 책으로, 이 차이는 인터뷰이 선정부터 책의 구조에 이르는 전반적인 면에서 다른 성격의 아카이브를 만들어냈다.

첫째, 1980년 이후 출생한 디자이너여야 할 것.

둘째, 10여 년 이상의 경력자여야 할 것. 혹은 이에 준하는 주제 의식을 지녀야 할 것.

셋째, 북디자인의 생태계와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여야 할 것.

넷째, 북디자인의 소주제를 대변해야 할 것.<sup>30</sup>

위의 내용은 『펼친면』의 인터뷰이 섭외 원칙이다. 『펼친면』은 북디자인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디자이너를 섭외했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펼친면』은 한국 북디자인의 미적 성취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기록한다. 예컨대 『펼친면』은 인터뷰이가 작업한 책을 언급하며 그 자신 디자인의 고유함을 만들어낸 요소를 짚는다. 인터뷰의 처음과 끝, 몇몇 꼭지 사이에 들어가는 저자의 글은 각기 다른 디자이너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왜 이 인터뷰이를 책에서 소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 그리고 ‘1. 내가 평소에 작업을 살펴보면 디자이너, 2. 인터뷰나 매체 등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디자이너, 마지막으로 3. 낯가림이 심한 내가 그래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이너’라는 (이상한) 기준으로 인터뷰 대상을 선정했다.<sup>31</sup>

이와 다르게 『우책디』는 상대적으로 매체에 소개되지 않았던 디자이너, 저자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디자이너를 인터뷰이로 선정하여 비교적 친밀하고 개인적인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했다.

26 전가경, (2024), p.192

27 6699프레스, <https://6699press.kr/about>, (2024.10.3.)

28 공병혜·박순애, 「질적 연구 인터뷰에 대한 철학적 배경」, 『질적연구』, 10권 2호, 질적연구학회, 2009, pp.77-85, p.82

29 이해를 돕기 위해 조슬기 디자이너에 대한 인터뷰 질문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30 전가경, (2024), p.5

31 나영선, (2024), p.9

처음에는 인터뷰이로 유명한 선배들, 혹은 선생님들을 떠올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또래, 현업 디자이너로 인터뷰 대상을 옮기셨죠.

이 책을 기획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출간계획서를 쓰는 거였어요. 하다 보니 유사·경쟁 도서에 제가 생각했던 선배와 선생님들은 이미 인터뷰도 하시고 책도 쓰셨더라고요. 그 책들이 출간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출판시장은 많이 바뀌었고요. (...) 제가 인터뷰한 디자이너 여덟 분은 오늘도 현장에서 일하는 현업 디자이너이자 저와 비슷한 또래지만 저보다 한 발짝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닳아 있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 <sup>32</sup>

『펼친면』은 “창작자로서의 북디자이너”를 기록하는 아카이브다. <sup>33</sup> 이 책은 동시대 한국 북디자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담론과 그에 대응하는 실천을 기록했다. 이는 디자이너의 개성에 기인한 북디자인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며, 그들의 작업을 후대에 참고 자료로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펼친면』에서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포트폴리오 페이지다. 판형, 종이 재질, 서체 정보, 협업자 등의 정보를 수록함은 물론, 『펼친면』을 기준으로 한 크기 비교 이미지를 제시하여 독자가 책의 물성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구성은 『펼친면』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책이라는 매체와 북디자이너라는 실천에 독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우책디』는 일과 커리어로 대표되는 ‘직업으로서의 디자이너’에 대한 아카이브다. 북디자이너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와 그들이 창작을 통해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우책디』의 본문에는 인터뷰이의 발언을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가 있다. 하나는 인터뷰이의 발언 중간마다 굿는 밑줄, 다른 하나는 간지에 수록된 주요 발언이다. 흥미로운 것은 두 사례는 인터뷰이가 수행한 작업에 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 아닌, 디자이너라는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문장에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전형적인 ‘디자이너 열전’에 가까운 책과 다르게, 인터뷰이의 발언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한 방편이다.

결국 『펼친면』과 『우책디』는 자신을 ‘작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아카이브다. 『펼친면』이 특정 시대와 세대에서 회자되는 이름과 작업을 활용해 디자인 장의 중심에 위치한 인물과 작업을 기록한다면, 『우책디』는 중심부와 떨어진 목소리를 발굴한다. 이는 디자인 장 내부의 권력 배분 구조에서 기인한 결과임과 동시에 기록과 배제라는 아카이브와 권력 사이의 관계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다.

#### 4. 논의: 인터뷰와 아카이브의 방법론적 쟁점과 가능성

『펼친면』과 『우책디』는 한국디자인사의 또 다른 층위를 쌓는 작업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책의 조형미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의 의도, 작업 과정을 들여다보며, 다른 한편으로 디자이너라는

32 나영선, (2024), pp.231-232

33 『펼친면』의 편집을 맡은 전민지는 “북디자이너의 ‘일하는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책에는 창작자로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고 싶었다. (...) ‘읽힌다.’라는 궁극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얼마만큼의 창조성을 담을 수 있는지, 그 제약과 시도의 여러 가지 모습이었다.”라고 『펼친면』의 의미를 회고했다. 전민지, 『계약과 시도의 여러 모습, 북디자인』, 『기획회의』, 608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24, <https://brunch.co.kr/@mujireview/6>, (2024.12.7.)

# 022023

직업에 내포된 일상의 경험과 감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펼친면』과 『우책디』의 시도는 방법론적으로 몇 가지 논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를 검토하는 것은 디자인사 연구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중요 단계다. 클라이브 딜넛(Clive Dilnot)은 디자인사 연구가 “역사적, 방법론적, 비판적 자기 성찰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다. <sup>34</sup> 방법론은 여전히 부차적인 주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그것은 심층적 연구 수행과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방법론은 “디자인 사학자들이 학문을 명확히 하고 또 강화하기 위해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대중을 위해 다루어야 할 주제”다. <sup>35</sup> 연구의 정당성과 깊이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로 방법론 그 자체에 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장에서는 방법론으로서 인터뷰와 아카이브에 제기되는 비판과 그것의 해결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기억과 기록의 신뢰성 문제다. 비판론자들은 개인의 기억과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제로 기억은 주관적이고 시간에 따라 재구성되기 때문에 발화 상황에 따라 특정 사건이나 작업이 과장되거나 축소되기 쉽다. 예를 들어 인터뷰에 참여한 디자이너가 어떤 경험은 과장하고 또 다른 어떤 경험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터뷰이의 착각이나 실수로 탓해서는 안 된다. 기시 마사히코(岸政彦)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긋남을 포함한 이야기”는 “얼마간의 착각과 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의도적 거짓말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며,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sup>36</sup>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연구자에게 있다. 그리고 신뢰성 제고는 비단 실증주의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여기서 교차 검증은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신문 기사, 비평문 등 문헌화된 자료를 함께 살펴보거나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이들과 후속 인터뷰를 진행해 보는 것이다. 『이영희』가 구술 증언과 스크랩 자료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을 떠올려 보라. 또한, 연구자는 인터뷰가 과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거나 ‘복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며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과정’임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교차하는 기억과 기록은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방증한다. 그렇기에 신뢰성은 정확함의 여부에 천착하기보다 여러 갈래로 뻗어지는 맥락과 의미를 포착하여 연구의 깊이를 더하려 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둘째, 서사의 균형 문제다. 『펼친면』은 작업물을 중심에 두고 이를 만든 디자이너의 철학과 그 성과를 묻지만, 『우책디』는 디자이너의 직업 전선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경험과 고민을 묻는다. 두 사례가 북디자이너를 대하는 상당한 시각차를 바탕으로 계획되고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차이는 한편으로 한국디자인사의 다양성을 드러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각각의 접근 방식에 과도하게 치중하다 보면 서사의 편향이 생기기 마련이다. 작업물 위주의 서사는 디자이너의 창작 과정을 배제하거나 간과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인물 서사 발굴에만 집중한다면 디자인의 의미나 그 조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질문 설계 단계부터 두 서사를 고르게 드러낼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며, 해석과 서술 단계에서는 독자의 반응, 시장의 수용 방식, 평론가의 평가 등 외부 요인까지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작업물과 창작 과정, 디자이너의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흥미롭고 다층적인 한국디자인사의 서사를 만드는

34 Clive Dilnot, “The State of Design History, Part 1: Mapping the Field”, Design Issues, Vol. 1, No. 1, 1984, pp.4-23, p.12

35 Daniel J. Huppertz, “Introduction to Methodology: Virtual Special Issue for the Journal of Design History 2018”,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33, No. 1, 2020, pp.e25-e40, p.e25

36 기시 마사히코, 『망고와 수류탄: 생활사 이론』, 정세경, 두번째테제, 2021, pp.28-29

데 이바지할 것이다.

셋째, 아카이브와 권력의 관계다. 아카이브는 자료를 선별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따른다. 어떤 기록을 보존하고 또 어떤 기록을 제외할 것인가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사람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의 아카이브가 디자인계 구성원 전체를 아우를 수 없기에, 포함과 배제는 필연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특정 인물의 서사를 축적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인물의 서사는 덜 중요한 것,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위험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성성(multivocality)에 기반한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이훈상에 따르면 역사 연구에서 다성성은 “역사의 장을 움직이고 만들어 가는 관련자들의 시점을 복수로서 도입하는 방식”이다.<sup>37</sup> 이러한 접근은 “통합적 시각의 디자인사 서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디자인사의 내용을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수 디자인사의 존재와 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sup>38</sup> 이를테면 『펼친면』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일정 경력 이상의 디자이너가 중심이 된 기록은 복디자인 역사의 일부일 뿐이다. 더욱 다양한 개인의 관점과 목소리가 아카이브에 반영될 때 비로소 다층적 역사 서술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더해, 디자인의 역사는 디자이너의 시각에서만 서술될 수 없다. 출판사 회계 직원, 인쇄소 기장, 클라이언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험을 아카이브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직하다. 편집 과정에서 배제된 목소리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후속 작업을 통해 언급하는 행동 또한 필요하다. 아카이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제된 자료가 왜, 어떻게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은 아카이브가 기존의 권력을 재창출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고, 다종다양한 이야기를 길어 올리는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든다.

디자인사는 “근대적 인식론에서 강조되는 세계에 객관적 진실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과학적 지식이나 보편적 이론 체계에로의 환원을 거부”하고,<sup>39</sup> 디자인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영향과 그에 기인한 디자이너의 문제의식 발현을 밝혔을 때 더욱 풍부한 학문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한국디자인사 연구는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쟁점과 한계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비판적 성찰의 기회로 삼으며 학문의 확장과 심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이 글은 두 권의 디자이너 인터뷰집을 사례로 한국디자인사를 서술하는 방법론으로서 인터뷰와 아카이브의 의미를 탐구했다. 『펼친면』과 『우책디』는 기존 연구가 간과했던 디자이너의 목소리와 창작 이면의 작은 역사를 포착함으로써 한국디자인사의 또 다른 서사적 층위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펼친면』과 『우책디』는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펼친면』은 2000년대 이후 한국 복디자인계를 논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디자이너를 인터뷰이로 섭외했다. 이를 통해 일군의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복디자인의 미적 성취와 유산을 강조하며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남기고자 했다. 반면, 『우책디』는 기획자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동료 디자이너를 섭외했다. 그리고 그들이 직업인으로서 회사와 작업실, 혹은

37 이훈상, 「미시사와 다성성의 글쓰기」, 『한국사론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국사편찬위원회, 2001), pp.69-103, p.91


38 채승진, 「역사 연구방법에서 디자인사의 위치와 방향」, p.76

39 공병혜·박순애, (2009), p.82

# 024025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과 삶의 맥락을 세심하게 다루었다.

이 같은 시도는 디자인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한다. 인터뷰에는 특정 사실을 과장하거나 생략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작업물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불균형적 서사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아카이브는 자료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특정 권력 구조를 재생산할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하다. 전통적인 연구(자)는 이러한 쟁점을 한계로 인식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구사하는 연구(자)를 비판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이론과 방법론의 특권적 지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새로운 연구(자)의 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기에 이 새로운 방법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하나의 관점과 서사에 편향된 태도를 경계하고, 다양한 행위자와의 대화를 시도하며, 아카이브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디자인은 완결된 작업물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그 결과물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디자이너의 감정, 고민, 일상의 어려움을 포함한 일과 삶의 다양한 장면은 기억되고 기록될 만한 한국디자인사 연구의 주제이다. 이때 인터뷰와 아카이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디자인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과정을 포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서사적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은 한국디자인사 연구가 더 풍부하고 포괄적인 학문 분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기시 마사히코, (2021), 『망고와 수류탄: 생활사 이론』, 정세경, 두 번째 테제
- 김린·이재영, (2016), 『한국,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 11』, 6699press
- 김병익, (2014), 「못 가 본, 새로운 길의 더 아름다움」, 『예술사 구술 총서 005. 박완서: 못 가 본 길이 더 아름답다』, 국립예술자료원·수류산방
- 나영선, (2024), 『우리는 책을 디자인합니다』, 알음알음
- 이민규, (2023), 『이영희는 말할 수 있는가?』
- 전가경, (2024), 『펼친 면의 대화』, 아트북스
- 강승연, (2021), 「디자이너 이상철을 통해 본 1960-1970년대 초반 한국 디자인」, 『Extra Archive: 디자인사연구』, 3호, 한국디자인사학회
- 공병혜·박순애, (2009), 「질적 연구 인터뷰에 대한 철학적 배경」, 『질적연구』, 10권 2호, 질적연구학회
- 김경주, (2016),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용한 시각표현 연구: 아카이브 방식을 활용한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귀옥, (2006), 「한국 구술사 연구현황, 쟁점과 과제」, 『사회와역사』, 71집, 한국사회사학회
- 김여용·박영목, (2015), 「다학제적 관점의 디자인사 조망 필요성」,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디자인학회
- 김종균, (2023), 「초국가적 디자인사 연구와 아카이브 - 국립디자인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40호, 한국예술연구소
- 박지나, (2021), 「박휘락의 『한국 미술교육사: 미술교육 100년의 흐름(1895-1995)』를 읽고」, 『Extra Archive: 디자인사연구』, 3호, 한국디자인사학회
- 안병학, (2023), 「디자이너를 위한 태도와 전술로서 아카이브」, 『Extra Archive:

- 디자인사연구, 7호, 한국디자인사학회
- 원종관, (2008),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윤택림, (1994),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이용기, (2009), 「역사학, 구술사를 만나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본 구술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 71호, 한국역사연구회
- 이지원·김상규, (2016), 「디자인 연구를 위한 구술 연구 방향 제안」, 『한국과학예술포럼』, 25호,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 이훈상, (2001), 「미시사와 다성성의 글쓰기」, 『한국사론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국사편찬위원회
- 전가경·정재완, (2021), 「복 디자인 연구 모임, 1980년대 한국 출판 디자인 현장 기록과 증언」, 『Extra Archive: 디자인사연구』, 2호, 한국디자인사학회
- 조한욱, (2001), 「미시사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론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국사편찬위원회
- 조혜영, (2021), 「박휘락 교수에게 듣는 한국 근대 디자인교육」, 『Extra Archive: 디자인사연구』, 3호, 한국디자인사학회
- 천혜정, (2004), 「연구 방법으로서의 질적 인터뷰: 철학적 의미와 방법적 측면」,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권 3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채승진, (2000), 「역사 연구방법에서 디자인사의 위치와 방향」, 『디자인학연구』, 35호, 한국디자인학회
- 최범, (2020), 「디자인사 연구의 과제와 방법: 왜, 무엇을, 어떻게?」, 『Extra Archive: 디자인사연구』, 1호, 한국디자인사학회
- 전민지, (2024), 「제약과 시도의 여러 모습, 복디자인」, 『기획회의』, 608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https://brunch.co.kr/@mujireview/6>
- 6699프레스, <https://6699press.kr/about>
- Pierre Bourdieu, (1984), *La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 Clive Dilnot, (1984), "The State of Design History, Part 1: Mapping the Field", *Design Issues*, Vol.1, No.1
- Daniel J. Huppertz, (2020), "Introduction to Methodology: Virtual Special Issue for the Journal of Design History 2018",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33, No.1
- Hal Foster, (2004), "An Archival Impulse", October, Vol.110
- Jacques Derrida and Eric Prenowitz, (1995),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Diacritics*, Vol.25, No.2
- s. v. "Archive",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Archive>

# 026027



『펼친 면의 대화』	『우리는 책을 디자인합니다』
- 본래 디자이너가 아니라 광고학 전공이라고 들어서 놀랐다.	- 학생일 때 수업 과제를 위해 부탁드렸던 인터뷰 이후로 두 번째 인터뷰네요. 저도 업계에 발을 들이고 나니 다른 디자이너의 일상이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져서 다시 인터뷰를 요청드렸어요. 다른 디자이너들도 궁금해할 수 있고 또 제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간단히 이력을 소개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 인턴십 이후에 디자이너로 취직한 건가?	- 지금 회사에서 복디자이너로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나?	- 방금 본문 조판 업무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조판만 담당하는 디자이너가 계셨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은 달라졌나요?
- 그곳에서 단행본 디자인을 본격 시작하게 된 건가?	- 회사의 이런저런 변화를 모두 겪을 정도로 오래 재직하고 계신데요. 이전 회사들은 2년 정도씩 다니셨고요. 지금 회사가 조건이 더 좋다는 점 외에 계속 다닐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점차 전문화된 출판 디자인 영역으로 들어온 셈이다. 문예출판사는 꽤 유명한 출판사고.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회사를 계속 다니는 데 정말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동료들과 화목하고 편한 사이일 필요는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면서 일할 수 있다면요.
- 문학과지성사에는 언제 입사했고, 출판사의 어떤 점이 좋았나?	- 정말 좋은 관계네요. 한 회사를 오래 다니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하게 돼요.
- 구체적으로 문학과지성사의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는가?	- 디자이너가 사실 머리를 계속 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조판 작업처럼 물리적 노동이 필요한 일도 머리를 쓰는 것만큼이나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 문학과지성사의 인하우스 디자이너는 담당하는 책의 표지와 본문 디자인을 함께 도맡아 진행하는가?	- 아까 디자인 팀 통합을 얘기하시면서 연간 출간 중 수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좀 줄었나요?
- 전통적으로 본문 조판은 편집자의 영역이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애초부터 통합되어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 예전에 듣기로는 지금 통합된 디자인 팀에 네 분이 계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 10여 년 이상 한 직장에서 버티는 데에 쉽지 않은 마음가짐과 선택이 필요할 것 같다.	- 회사의 규모를 생각하면 디자이너가 적은 편은 아니네요.
-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회사 분위기가 디자인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나?	- 디자이너가 체감하기에는 일이 많은데, 회사에서 그럴 때마다 디자이너를 총원해 주지는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출판계가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다.”라고요.
- 문학과지성사 미술팀은 디자인센터라고 불린다. 현재 디자인센터에는 총 몇 명이 일하고 있나? 각 디자이너의 개성이 문학과지성사의 복디자이너에 반영된다고 보는가?	- 최근에 육아휴직을 하셨다 복귀하셨죠? 복귀 후에 생긴 직업적인 고민이 있으실까요?
- 인문과 소설 분야를 많이 디자인했는데, 이 분야가 본인에게 잘 맞다고 생각하는가? 문학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맞아요. 가끔은 계속되는 제 시안 속에서 내가 더 나은 시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시안 중에서 최종을 결정하는 건 대부분 다른 직군이 하잖아요. 다른 직군과의 협업 과정에서 슬기 님의 팁이나 요령이 있을까요?
- 최근 대산세계문학총서 리뉴얼 디자인이 인상적이었다.	
- 총서 중 『이십억 광년의 고독』 『끝과 시작』 그리고 『악의 꽃』 리커버 작업이 눈에 띈다. 그런데 독자 입장에서 리커버가 일관되지 않고 다소 들쭉날쭉한 인상이다.	
- 문학과지성사에서 외부 디자이너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문학과지성 시인선 디자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집 디자인이 그렇다.	
- 내부에서도 디자인적 실험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 같다.	
- 『김 박사는 누구인가?』를 의미 있는 디자인으로 꼽았다.	
- 김사과의 『N. E. W.』도 좋았다. 김사과의 경우, 민음사나 창비 등 다른 출판사에서도 책이 나왔는데 차별화를 염두에 두었는가?	
- 제목에 사용한 서체가 고전적이면서도 날카롭다.	
-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방식의 후가공 디자인을 많이 본다. 여러 각도에서 빛이 반사되는 효과를 적극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이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 028029

『펼친 면의 대화』	『우리는 책을 디자인합니다』
- 영향을 발휘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흐름을 디자이너로서 예의 주시하는가?	-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상을 수상하셨죠. 다른 상들도 있으시고요. 상을 받아야만 ‘좋은 디자이너’라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으로서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 인문, 소설 분야의 책 크기가 제각각이다.	- 디자이너 조슬기의 다짐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 ‘문지 스펙트럼’ 시리즈 디자이너 ‘2021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상을 받았다. 이 책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찍이 『기획회의』에 기고한 글에서 언급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는 타이포그래피에 초점을 뒀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도 궁금하다.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쓰기』 표지 이미지는 일부러 조각을 낸 건가?	- 다른 디자이너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 일과 일상의 밸런스는 어때세요? - 집안일이라는 게 정말 할 일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조금은 여유가 생기셨겠어요.
- 서체는 그 시대 혹은 국가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선택하는가?	- 초등학생 부모로서 직장 생활은 어떤가요? 아이가 생기면 그 전의 회사 생활과 또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 파스칼 키냐르의 『부테스』의 본문을 보니 한 면에 글줄이 매우 적더라. 편집자가 본문 조판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편인가?	- 불안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 현장에서 편집자가 본문 조판 시 한 면에 들어갈 글줄을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실제 그런가?	- 이번이 두 번째 육아휴직이군요?
- 신덕호 디자이너는 『북해에서의 항해』의 본문을 집요하게 작업했다고 하더라. 이런 본문 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요즘 일상의 고민이 있다면요?
- 문학과지성사 로고는 빨간색 사각형이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그런데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오히려 표지 디자인에 방해되는 요소일 수도 있겠다. 오랜 시간, 이 로고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출판사의 시각 정체성으로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본 적은 없는지 궁금하다.	- 저는 알 수 없는 세계지만, 아이를 키우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 평소 조슬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FDSC) 가입이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가입하게 됐나?	- 좋네요. 회사에 따라서는 이게 큰 고민일 수도 있잖아요.
- 그전에도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었나?	- 이번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요즘 만나는 디자이너마다 SNS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아이가 있다고 들었다. 평소 SNS에 개인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못 했다.	- 저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예요. 디자이너처럼 보이는 계정을 꾸려야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 복디자이너에게 유난히 여성 디자이너가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다고 느끼는가?	- 작업 계정에 작업물을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신데, 실제 작업량은 훨씬 많잖아요.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 FDSC 활동을 자평하자면?	- 개인 계정이 지금은 비공공 상태지만,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 마무리 코멘트가 있다면?	-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나요?
평소 조슬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FDSC) 가입이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가입하게 됐나?	- 디자이너가 아닌 조슬기로서 목표나 다짐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 그전에도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었나?	- 맞아요. 한 번뿐이니깐요. 긴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이가 있다고 들었다. 평소 SNS에 개인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못 했다.	
- 복디자이너에게 유난히 여성 디자이너가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다고 느끼는가?	
- FDSC 활동을 자평하자면?	
- 마무리 코멘트가 있다면?	